

부활의 의미와 절대 목표

에셀 37:1-10, 고린도전서 15:12-20

정운돈 목사님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은혜를 창세 전에 예정하시다가, 갈보리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을 증명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 치료의 메시지,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출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는가.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알고 믿을 뿐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확실한 것이요 역사적인 것이며 객관적, 과학적인 것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변증서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멀지 않다. 모든 것을 합리적, 객관적,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적인 완전한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영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서운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엘리트들이고 지식인들인데, 이 사상에 빠지니까 신비주의로, 다원주의로, 혼합주의로 빠지다가 타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히면 다른 힘, 귀신과 마약을 의지하게 된다.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뛰어넘어야 창조가 된다. 이번 세계선교대회 때 유명한 프랑스의 디자이너를 소개받았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프랑스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모든 교수들이 동성애자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와서 배우던 멸절한 학생들이 다 동성애자가 되어서 나간다고 한다. 창조원리에 벗어나는 것인데,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요 네피림 문제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재창조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그것을 하려면 귀신의 힘, 마귀의 힘을 빌어야 한다. 음악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다. 마약을 하거나 뭔가 약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창조를 해야 하나.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불합리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부활은 믿지 않았다. 더 이상한 것은 믿는데 부활은 안 믿었다. 그런 일들이 고린도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대한 변증을 한 것이다. 요즘도 활동하고 있는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도 ‘부활은 사기다, 없었던’ 일이다 하고 강연하면서 돌아다닌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권사인데 그러고 돌아다닌다. 헛똑똑이다. 세상에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부활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런데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도마복음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한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후대에 쓴 책이다. 그게 있다. 그것을 우리는 모르는데 김용옥은 그것을 인용해서, 그것이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다. 틀린 것인데도 그런 것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싸움이 많았다는 것이다. 서울대학에 다니는 우리 램넛트가 말씀을 잘 믿기 힘들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이야기해 주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말했다. 프로이트, 스키너, 에릭슨, 그 어느 누구도 전체를 말해주지 못했다. 인간의 아주 일부만 말했을 뿐이다. 오직 성경만이 사람의 전체를 말해준다.” 인간은 연구하면 할수록 변수가 너무 많다. 환경, 심리, 건강,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런데 대학에 처음 들어가면 교회에서 배운 것이 맞는지 의심하도록 가르친다. 다른 것은 다 의심해도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부활이다. 오늘 부활에 대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먼저 나누고, 성경적으로 부활의 의미를 나누고자 한다.

1. 부활의 증거

부활을 부정하는 몇 가지 이론에 대해서 반증하는 것이 있다.

(1)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대부터 주장했던 이론들이 있다. CCC의 10 step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① 첫째, 기절설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도망쳤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다.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사람이 죽었을 때 심장을 찌르면 하얀 혈소판이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 새벽부터 주님은 아무 것도 드시지 못했다. ‘내가 목마르다’고 하실 정도였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신 주님이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생리적으로 사망이 확실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 정말 예수님이 기절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을 지금 세마포로 둘러싸서 동굴로 된 무덤에 눕혀놓지 않았는가. 손과 발에 못이 박혔던 사람이 과연 걸을 수 있었겠나? 손으로 무덤의 문을 열 수 있었겠나? 6톤에서 18톤이 되는 동굴 문을 굴릴 수가 있었겠나? 열었다 해도, 밖에 경비병들이 있지 않나? 기절설은 말이 되지 않는다.

② 둘째 주장이 도난설, 훔쳐갔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 시체를 훔쳐가 놓고, 그 훔쳐간 시체를 위해서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제자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훔쳐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 할 때 시체를 보여줬을 텐데 그런 적이 없지 않나?

③ 또 세 번째가 환상설이다. 술을 마시고 완전히 취하면 환청이나 환상, 환각에 시달리게 된다. 중독이 된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 몸에 벌레가 기어 다닌다고 한다. 그런 환상을 봤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 한두 차례 본 것도 아니었다.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보이시고, 또 보이셨다. 왜 40일 동안이나 계셨는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셨다. 고린도전서 15:7에는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했다.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2) 또 한 가지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한 소설 속의 인물이라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100년 이전에 존재한 인물은 아무도 증명할 길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사실은 어떤 무엇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증거가 정말 있는가? 몇 군데 기록된 것밖에 없다. 다른 물증, 실물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럴 것 같으면 거북선도 못 믿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수천 가지의 사본이 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실재하셨던 역사적 인물이시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성적으로 연구해서라도 믿으시기 바란다. 고향에서 선생님 한 분이 부활절에 예배에 와서 내 설교를 들었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셨다. 여러분도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란다.

(3)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다. 유대인 중에서도 매국노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다. 그 매국노가 쓴 책에 부활이 다 기록되어 있다. 마가는 열두 제자 중 한 사람도 아니었다. 누가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스인이었다. 유대인들은 자기 외에는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3천 명의 유대인들이 제자로 일어났다.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몇 만 명의 유대인이 짧은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아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했느냐 하면, 그 부모는 자기 아들이 안식일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의 위반이 아닌가,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철저한 사람들이, 매국노가 쓴 기록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짧은 마가가 쓴 것, 이방인 누가가 쓴 것을 보고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믿게 되었다. 이것은 오히려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요 객관적인 사건임을 변증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확실히 역사적, 과학적, 사실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2. 부활의 의미

본문 말씀에서는 부활의 의미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절대적 목표와 미션이 나온다. 그 의미와 미션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1)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2)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3) 부활 사건은 죄, 사단, 지옥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요, 구약의 모든 말씀

이 성취된 사건이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주장하는데, 나도 믿어주고 싶다. (웃음) 그런데 한 가지만 꼭 해 주시기 바란다. 빨리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된다. 그러면 믿어주겠다. (웃음) 그만 사람들을 미혹하고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다. 여기 신천지 교육받으신 분이 있으면, 행4:12을 백 번만 암송해 보라. 다른 이름이 없다. 요14:6을 백 번만 읽어 보라. 이만희로는 안 된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 이만희 할아버지도 청년 때부터 이단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새로운 이단을 창입한 것이다. 너무 열심히 배워서 그렇게 됐다. 박태선 전도관, 유재길 장막성전에서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도 신천지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그만큼 열심히 훈련받지 않지 않나?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을 억지로 시키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란다. (웃음) 사도바울의 사역 중 1/3은 잘못된 사상, 유대교나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과 싸우는 것이었다.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잘못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야 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잘못된 길에 있는 사람을 건져낼 만큼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성숙해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4)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며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5)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친히 증명해 주신 모델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든 안 하든 몸에 별 차이가 없었다.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 위도 걸으셨다. 부활 전에도 후에 그 능력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우리에게, 인간에게도 죽음과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인사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인사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장렬히 순교해 갔다. 그러면서도 평안을 나누며 인사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6) 부활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이었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확실한 힘의 근거가 되었다.

(7) 부활은 재창조의 능력을 보여 주시고, 우리도 그 능력 속에 살 수 있게 하신 사건이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가. 건강에, 가정에 문제가 있는가. 나라에, 산업에, 경제에 문제가 있는가.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생기가 들어가서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뼈처럼 말라 버렸어도, 썩어서 냄새가 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은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살하려 하는 자, 마약에 빠진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몇 마디만 해도 살아나게 되었다. 마약 환자들에게 마약 치유에 대한 강의를 하니까, 환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은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고 했다.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완전히 변해 버렸다. 여러분, 썩어 문드러진 사람도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주일에 교회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고난을 받는 길이었다. 발각되고 붙잡히면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는 길이 있었다.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을 만큼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8)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전제조건이 되었다. 로마서 4:25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9) 거듭남을 위한 조건이었다. 벰전1:3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조건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다.

(10) 성령이 오시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탄생할 때의 내용을 보라. 행2:22-36을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다. 부활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전제조건이다.

(11) 우리는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엠2:5-7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3. 부활의 미션과 절대 목표

부활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에 부여하신 미션과 절대 목표를 몇 가지 생각해 보자.

(1)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초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평강이다.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조급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다. 부활을 믿을 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요20:19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20:21에,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20:26에도,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의심했던 도마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우리가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나 같은데 왜 의심하느냐고 꾸짖었을 텐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2) 둘째 절대 목표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천명, 소명, 사명을 지워 주셨다.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모두 알게 하신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베드로는 30년 후에,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었던 것이다. 너무나 문제가 많고 부족했던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는, 평생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베드로는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가. 베드로에게 영세 전부터 예정된 천명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다.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은, 내게 주신 환경과 여건, 그 현장 속에서 양을 먹이는 것이었다.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말씀운동을 하시고 다락방을 하시기 바란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라. 다만 목표를 가지고 가라. 24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잘못을 치유해 가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회개하면서 가는 것이다. 잘못을 합리화시키면 각인이 된다.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가라. 교회를 위해, 가정과 직장을 위해, 틀린 생각을 품었다면 그것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가는 것이다. 베드로가 미래에 감당해야 할 사명은, 주님의 양을 양육하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부탁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나의 목표요, 우리 교회의 목표다.

(3)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주신 절대 목표가 무엇인가? 마28:18-20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막16:15-20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행1:8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부활 메시지였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기독교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부활교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부활신앙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니까 요즘 기독교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 치욕이, 여러분 때문에 은혜의 종교, 부활의 종교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란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게 요엘이, 다니엘이, 에스더가 받았던 응답이다. 부활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변화시킨 은혜의 사건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을 믿게 하시는 주님의 노력과 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도 희망도 없었을 것인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그 부활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안에 죽어있고 썩어있는 모든 부분이 재창조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재창조되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현장이 죽어 있고 썩어 있더라도, 부활을 믿는 나 때문에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재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